

서론	
Introduction	요한복음 6 장은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유월절 절기(요 6:4) 직후의 이야기이다. 무리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예호수아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육신의 양식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으로 돌리신다. 그의 말씀은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장차 올 구속에 대한 소망 위에 세워져 있다.
핵심 본문 – 요한복음 6:35–51	
Core Passage – John 6:35–51	예호수아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신다. 만나가 이스라엘의 육신을 살렸듯이, 예호수아는 야훼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신다. 핵심은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늘의 생명을 받는 통로가 된다.
토라의 층	
Torah Layer	Yochanan 6 echoes Exodus 16. Yisrael gathered manna every morning, yet the manna could not prevent death. Devarim 8:3 explains the deeper lesson: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YHWH." The manna always pointed beyond itself to complete dependence upon YHWH. Yehoshua now identifies Himself as that living Word made visible to Yisrael. 요한복음 6 장은 출애굽기 16 장을 반영한다.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죽음을 막지 못했다. 신명기 8:3 은 그 의미를 설명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는 언제나 야훼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리키는 표적이었다.

이제 예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살아 있는 말씀임을 밝히신다.

Prophetic Layer

Yishayahu 55 invites everyone who hungers to come and eat without cost. Yermiyahu 31 promises a renewed covenant in which Torah will be written upon the heart. Ezekiel 36 speaks of a new spirit given by YHWH. Together these prophecies reveal that the coming redemption would satisfy an inner hunger rather than merely provide external blessings. Yochanan 6 presents Yehoshua as the fulfillment of this expectation.

이사야 55 장은 굶주린 모든 자를 값없이 먹으러 오라고 초청한다. 예레미야 31 장은 토라가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약속한다. 에스겔 36 장은 야훼께서 새 영을 주실 것을 선포한다. 이 모든 예언은 장차 올 구원이 단지 외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굶주림을 채우는 것임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 6 장은 예호수아를 그 약속의 성취로 제시한다.

Teachings

Midrash teaches that the manna adapted itself to the needs of every Yisraelite, demonstrating YHWH's personal care. **Rashi** notes that manna descended daily to cultivate continual trust rather than self-sufficiency. **Ramban** explains that the manna trained Yisrael to depend upon heaven rather than earthly security. **Zohar** describes heavenly bread as nourishment that joins heaven and earth. These traditions illuminate why Yehoshua chose manna as the central image for His teaching.

미드라쉬는 만나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주어졌다고 설명하며, 야훼의 세심한 돌보심을 강조한다. **라쉬**는 만나가 매일 내려온 이유를 매일의 신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람반**은 만나가 하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조하르**는 하늘의 떡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양식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전통은 왜 예호수아께서 만나를 자신의 가르침의 중심 비유로 사용하셨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The Hidden Pearl

The manna had to be gathered every day. Yesterday's manna could not sustain today's journey. Likewise, faith cannot survive merely on yesterday's experience. Every generation—and every believer—is called to receive the Bread of Life anew each day. YHWH does not simply provide enough for survival; He continually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의 여정을 살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어제의 경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모든 세대와 모든 믿는 자는 날마다 새롭게 생명의 떡을 받아야 한다. 야훼께서는 단지 생존할 만큼만 공급하시는 분이

invites His people into daily fellowship and dependence.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의지하도록 초청하신다.

Messianic Fulfillment

The wilderness manna preserved Yisrael's earthly life for a season, but Yehoshua offers eternal life through abiding faith in Him. The first manna pointed forward to the greater gift. The Bread of Life does not replace the Torah—it fulfills the Torah's purpose by bringing people into complete communion with YHWH. Through Him the wilderness journey reaches its destination: life in the presence of the Father forever.

광야의 만나는 한동안 이스라엘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켰지만, 예호수아는 자신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첫 번째 만나는 더 큰 선물을 예표하였다. 생명의 떡은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목적을 완성하여 사람들을 야훼와 온전한 교제로 인도한다. 그분 안에서 광야의 여정은 마침내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